

일기 텍스트 분석

분류

- negative: 단어
- positive: 단어

01

나의 경우 오랫동안 일기장 유목민으로 살았다. 학교 로고가 박힌 것부터 카페 다이어리, 만년 다이어리, 수제 노트까지 정말 안 써본 게 없다. 그러다 3년 전 운명의 친구를 만났다.

이 노트는 '미도리'라는 일본 브랜드의 것으로, '여행자의 노트(트레블러스 노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가죽 커버를 사서 속지를 바꿔 끼는 형식이다. 한 해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손때가 묻어 근사해진다. 쓰면 쓸수록 정이 붙어 요샌 어딜 가든 들고 다닌다. 미도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평생 쓸 계획이다.

```
comparative 0.06944444444444445
emoji 😊
negative {score: 0, count: 0, words: Array(0)}
positive {score: 10, count: 4, words: Array(4)}
words: (4) ['fail', 'affection', 'wonderful', 'friend']
normal {count: 0}
score 10
```

02

어느덧 삼색냥과의 만남은 두 달, 새끼냥들과의 만남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른다. 처음 봤을 때 너무도 양증맞던 새끼냥들은 엄마의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새끼냥중 한 마리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 봤을 때 네 마리였던 새끼냥들이 지금은 세 마리로 줄어있는데 한 녀석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참 답답하다

```
comparative 0.016666666666666666
emoji 😊
negative {score: -3, count: 2, words: Array(2)}
words: (2) ['frustrating', 'no']
positive {score: 5, count: 3, words: Array(3)}
words: (3) ['care', 'growing', 'cute']
normal {count: 0}
score 2
```

03

이 말을 듣는데 순간 얼어버렸다. 이 한 마디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감정과 **슬픈** 사연이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전 팀장 보고 때 있었던 일을 들어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장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을**뿐더러,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A 팀장은 팀원들에게 마이크로 매니징을 **잘하는** 것이 본인의 **강점**이자, 자신이 팀장으로 **승진**한 이유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오늘 역시 A 팀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과장의 보고 자료를 반려시켰고, 과장님은 오늘도 야근을 하게 생겼다.

```
comparative -0.07142857142857142
emoji 😞
negative {score: -15, count: 7, words: Array(7)}
words: (7) ['ridiculous', 'misunderstands', 'unfair', 'insulting', 'hesitate', 'shocked', 'sad']
positive {score: 6, count: 3, words: Array(3)}
words: (3) ['promoted', 'strength', 'good']
normal {count: 0}
score -9
```

04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밤이 깊었는데 야근을 하는지, 높은 층의 불들은 꺼지지 않고 자동차 조명은 밤하늘을 밝히며 클락션을 크게 울려댄다. **시끄럽고 밝은** 도시, 서울은 내가 도망쳐온 곳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은 술을 마저 마신 뒤, 실력도 없는 주제에 예술가**처럼** 볼펜을 들어 노트에 풍경을 끄적인 나는 **만족스러운 척하며** 라운지 바를 빠져나왔다. 사실 **충족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방으로 카드키를 찍고 들어오자, 작지만 내겐 **안성맞춤인** 방이 보였다.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녀 통통 부은 발과 다리를 짹 조이고 있는 양말 고무에서 해방시켰다. 양말 자국으로 발강게 억눌렸던 부분이 나를 보며 **열심히** 뛰어놀았다, **칭찬한다**. 나는 양말 자국을 얼른 없애려 주무르다, 곧 이렇게 해도 탄력이 **사라져 가는** 피부가 금세 회복될 리 없다는 걸 깨달았다.

```
comparative 0.029411764705882353
emoji 😊
negative {score: -10, count: 6, words: Array(6)}
words: (6) ['losing', 'hard', 'hard', 'good', 'pretending', 'noisy']
positive {score: 16, count: 7, words: Array(7)}
words: (7) ['praise', 'perfect', 'fulfilled', 'like', 'satisfied', 'bright', 'beautiful']
```

```
normal {count: 0}
score 6
```

05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처음 현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계약직 직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규직을 달고 **진급**을 할까 고민했다. 회사는 결국 **이윤**을 만드는 곳이다. 매출과 이익을 **늘리면 인정**해주겠다 싶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던 영업을 했다.

당시 거래처의 매출을 5배 **증가**시켰고, 입사일이 제일 늦었지만 **진급** 대상자 중에 가장 빨리 진급을 했다. 물론 영업직은 나보다 연봉도 직급도 높았다. 그렇지만 내가 당시에 **연봉**도 쥐꼬리만 한데 영업까지 해야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업무만 했다면, 내 진급 순번을 기다리며 두세 번 **노락**했을 것이다.

내가 하던 업무는 단순해서, 누군가를 능력이나 업무로 평가하기 무리한 부분이 있어 근태나 업무 서류량으로 고과를 매기곤 했으며, 대부분 입사순으로 **진급**을 했다. 나는 급여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그만큼 돈과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내가 받는 만큼만 한다면 딱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
comparative 0.011363636363636364
emoji 😊
negative {score: -6, count: 5, words: Array(5)}
words: (5) ['no', 'pay', 'missed', 'no', 'admit']
positive {score: 9, count: 7, words: Array(7)}
words: (7) ['recognition', 'promoted', 'promoted', 'increased', 'profits', 'increased', 'promoted']
normal {count: 0}
score 3
```

06

7월 26일, 몽골에서의 넷째날. 모래사막인 홍고린엘스가 있는 게르에 도착해 짐을 풀고 양고기기가 들어간 볶음밥을 먹고 조금 쉰 뒤 낙타 체험을 했다. 낙타를 타고 나면 바지에서 낙타 냄새가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으니 버려도 좋을 옷을 입고, 장갑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는 후기를 보았지만 나는 **아끼는** 바지를 입었고 맨손으로 낙타를 탔다.

후기는 진짜였다. 낙타 근처에만 갔는데도 바람을 타고 쿨쿨한 냄새가 전해졌다. 낙타에 올라타서도 계속 올라오는 냄새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고개를 연신 돌려댔다. 우리는 줄지어 낙타를 탔는데, 앞에 있는 낙타와 뒤에 있는 낙타가 앞 뒤에 올라탄 사람의 다리에 입과 코를 비벼대는 탓에 옷이 축축해졌다.

우리는 낙타를 타고 와서 모두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일정이 모래사막에서 뒹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찝찝함에 그 옷을 입고는 도저히 모래밭에도 못 구르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겼다**. 물과 전기가 부족한 나라라 게르에 있는 침구류에서는 모래와 머리카락, 벌레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었는데 한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게르 침대도 **더러운** 거 아는데 도저히 이 옷으로는 게르 침대에도 못 눕겠어.'

```
comparative 0.025925925925925925
emoji 😊
negative {score: -2, count: 1, words: Array(1)}
words: (1) ['dirty']
positive {score: 9, count: 3, words: Array(3)}
words: (3) ['funny', 'favorite', 'good']
normal count: 0
score 7
```

07

살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 입맛이다.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잠시 바람이 머물다 가듯이 금세 바뀌는 부분도 있다. 예전의 나는 한 번 **좋아하기** 시작할 맛을 한결같이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소나무 같은 입맛 자체를 나의 불변하는 정체성 처럼 여기곤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임의로 정해 놓은 입맛에 나를 맞춰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맛없어**하는 것'으로 한번 정의 내리면, 다시 먹었을 때 썩 맛있어도 '**아냐**, 원래 난 이것 안 **좋아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 같았다고 할까.

그런 나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칼국수와 수제비라면 무조건 **질색**하고 **기피**하던 나는 이제 가끔 칼국수와 수제비를 먹는다. 내가 **싫어하는** 건 밀가루 덩어리를 씹는 듯한 두꺼운 면과 반죽이지 칼국수와 수제비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다. 얇고 쫄깃한 식감이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대개 감자 전분이 들어간 반죽이어야 그게 가능한 것 **같다**. 수타 장인이 얇고 탄력 있게 뽑아낸 경우라면 **더 좋을 것**이다. 아직은 그런 가게를 가본 일이 없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추세이니 나중에 장인의 칼국수와 수제비 집을 찾아가 먹어 보고 **싶다**.

```
comparative 0.02681992337164751
emoji 😊
negative {score: -11, count: 5, words: Array(5)}
words: (5) ['hate', 'hate', 'like', 'no', 'like']
positive {score: 18, count: 10, words: Array(10)}
words: (10) ['want', 'rise', 'better', 'like', 'like', 'delicious', 'feeling', 'like', 'like', 'liked']
normal {count: 0}
score 7
```

08

생일. 생일이라는 단어는 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일상에 불과한 날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단어라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서 '생일'은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해마다의 그날'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에서도 내포하듯 생일은 분명히 각 별한 날이다. 그래서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뜬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왔던 생일은 하나같이 기억이 생생하다. 첫 번째 생일은 말레이시아 땅을 함께 밟은 **친구**와 함께했다. 퇴근 후에 그 **친구**와 한인타운에서 두툼한 회 한 점에 맥주 한 잔으로 **피로**를 싹 씻었다. 주말에는 **멋진** 분위기의 식당에서 **사랑하는** 동기들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케이크로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보냈던 첫 번째 생일은, 겉으로는 한낱 보통의 날에 불과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던, 그런 날이었다.

```
comparative 0.06995884773662552
emoji 😊
negative {score: -2, count: 1, words: Array(1)}
words: ['fatigue']
positive {score: 19, count: 8, words: Array(8)}
words: (8) ['loved', 'nice', 'celebrated', 'friend', 'friend', 'amusement', 'like', 'excited']
[[Prototype]]: Object
normal {count: 0}
score 17
```

09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살핀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뇌의 한 부분이 지그시 조여지고 목덜미에 **힘**이 들어간다. 다른 부서에서 서류를 넘겨받아야 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일이 섞여 있으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로감**이 몰려온다. 벌써 이십 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버겁다**.

종일 빠근한 눈으로 모니터와 서류를 번갈아 보다 보면 어떤 날은 몇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 어날 틈도 없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의 순위에서 물을 받아오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은 번번이 뒤로 **미뤄진다**. 그럴 때 누가 말이라도 걸면 **신경**이 바짝 곤두선다.

누군가 내 자리로 걸어오는 게 **느껴질 때부터 짜증**이 난다. 상사나 동료가 묻는 말에 모니터에서 눈도 떴지 않은 채로 짧고 통명스럽게 답한다. 그 때문에 상대가 **민망**해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면서도 끝내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제발 나에게 말 걸지 말라는 심정을 가득 담아 표정과 목소리를 지어낸다. 마치 상대가 내게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냉랭하게 대한다.

이런 내가 나도 **불편하다**. 나의 어떤 모나고 **못된** 마음이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형편없고 **심술 맞게** 사람을 대하는 걸까. 회사에 있으면 자주 기분이 **나빠진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 것 같고, 내게 일을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기다려달라고 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리를 비운다. 어쩐지 일하는 사람만 계속 일하는 것 **같고**, 그게 나인 것 **같아서 억울하다**. 내 눈에는 보이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그 일을 나도 못 본 **척하려** 애쓰지만, 결국 그 일은 언젠가 해야 할 일로 남아 나를 **괴롭힌다**.

시간 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내가 기계**처럼** 느껴질 때면 **'그래, 나는 기계야. 그러니까 나한테 인간성은 기대하지 마.'**하고 양심을 품는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내 인간성이 **훼손되는** 기분이다. 그런 마음이 너무 꽉 들어차서 넘칠 것 **같으면** 너무 늦기 전에 휴가를 낸다.

```
comparative -0.033185840707964605
emoji 😞
negative {score: -30, count: 16, words: Array(16)}
words: (16) ['undermined', 'bothers', 'pretend', 'unfair', 'bad', 'badly', 'wicked', 'comfortable', 'wrong', 'uncomfortable', 'embarrassed', 'annoyed', 'nerves', 'delayed', 'hard', 'tired']
positive {score: 15, count: 9, words: Array(9)}
words: (9) ['like', 'yes', 'like', 'like', 'like', 'kind', 'god', 'feeling', 'strength']
normal {count: 0}
score -15
```

10

제주의 아침이 밝았다. 캄캄한 밤길을 **장님**처럼 헤치고 올라올 때는 예감하지 못했던 **싱그러운** 아침이 눈 앞에 펼쳐졌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땅 위를 봄 햇살이 거칠 것 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밤에는 그저 어두운 장막 속에 잠긴 것처럼 느껴지던 리조트는 사실 온통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방에는 아직 그녀가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고 창 밖으로는 처음 보는 이색적인 새가 지저귐다. 감동적인 제주의 아침. 나는 한껏 기지개를 폈다.

제주도 여행 둘째 날의 아침 식사는 전복 돌솥밥. 그녀의 초이스에 **감탄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나무가 좌우로 우거진 리조트 길을 따라 식당으로 향하길 10분 여만에 목적지가 눈에 들어왔다. 초가지붕을 엮은 아담한 식당이 노란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제주의 봄 **햇살**은 살결을 **데우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따사로웠고 그 빛을 온몸으로 내려받고 있는 초가지집의 자태는 정겹고 **아름다웠다**. 리조트에서 가까운 입지와 **예쁜** 초가지집, 그리고 맛에 대한 소문들이 맞물려 식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맛은 어땠을까? 20여 분의 조금 긴 기다림 끝에 먹어 본 전복 돌솥밥은 내 인생의 돌솥밥 중에 가장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바다로 향했다.

운전은 첫날보다 확실하게 **나아져** 있었다. 인간의 몸은 **놀라워서** 자는 동안 전날 학습한 것을 스스로 체계화하고 숙련하는 과정을 거친다더니, 과연 그랬다. 운전대를 잡은 두 팔과 페달을 밟는 다리에는 어느덧 **여유**가 깃들어서 더 이상 **긴장해**서 쥐가 나는 일은 **없었다**. 아직까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유도 네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는 여유도 없어 그녀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했지만. 이호테우 해변에 이어 방문한 바다는 함덕 해수욕장이었다. 함덕 해변의 바다는 그간 경험한 동, 서, 남쪽, 그 어떤 바다와도 확연히 다른 에메랄드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조금 이른 해수욕을 **즐기는** 인파들로 해변이 붐볐고 나와 그녀는 손을 잡은 채 해변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
comparative 0.06581740976645435
emoji 😊
negative {score: -5, count: 4, words: Array(4)}
words: (4) ['nervous', 'no', 'strange', 'blind']
positive {score: 36, count: 17, words: Array(17)}
words: (17) ['enjoying', 'help', 'relaxed', 'amazing', 'better', 'delicious', 'pretty', 'beautiful', 'like', 'warm', 'sunshine', 'inspiring', 'peace', 'like', 'fine', 'like', 'fresh']
normal {count: 0}
score 31
```